

세라믹 산업 발전 이끌 ‘세라믹연구조합’ 설립

업계 숙원사업... 13일 창립총회
조선내화 등 회원사 100여개사
기술개발·원료 수급 안전망 구축
이사장 이종근 대한세라믹스 대표



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이리스홀에서 개최한다.

세라믹산업연구조합 설립은 80년 역사를 가진 세라믹 산업체 모임의 숙원 사업이었다. 세라믹이 3대 기초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금속, 고분자 등 타 기초산업 및 여러 후방산업과 달리 민간 연구조합이 없는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라믹연합회는 그동안 연구조합 설립을 위한 세라믹 관련 산학연관의 협의 및 조정 작업을 거쳐 지난달 24일 발기인 대회를 마쳤고, 조선내화, 포스코퓨처엠, 대

한세라믹스, 미코, 와이제이씨 등을 비롯해 산학연 100개사의 회원 참여를 목표로 창립총회를 진행한다.

한국세라믹산업연구조합은 첨단 기술 개발은 물론 소재 자립, 공급망 확보로 첨단 세라믹소재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예상치 않은 국외 경제 충격으로부터 원료 수급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주력한다. 또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세라믹 소성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공정비용 절감에 선제 대응하고, 환경, 건축, 내화, 내열구조, 생활 세라믹스 등 넓은 산업스펙트럼에 대응해 세라믹의 예술적 가치와 고부가 가치화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라믹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의 니즈를 반영해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연구조합으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감사, 기획, 심의 및 임원선출이 진행되며 이종근(사진) 대한세라믹스 대표를 초대 이사장으로 하고, 15명의 이사, 1명의 감사로 임원진을 구성했다. 초기 운영을 위해 한국세라믹연합회의 김형태 전무를 상근이사로 관리총괄을 담당하게 했으며, 연구지원본부, 운영지원본부에 각각 2명의 상주 인원을 선임해 세라믹 산업계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이종근 한국세라믹산업연구조합 이사

장은 “한국세라믹산업연구조합의 최종 목표는 ‘세라믹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호스트”라며 “세라믹산업을 이끌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연구개발의 플랫폼 제공 역할, 세라믹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체 역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총회 이후 조합의 주체인 회원사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산업 로드맵 구축, 세라믹 업계의 뜻과 니즈를 반영한 선형 R&D 발굴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우수 사업의 정부 제안을 통해 실질적 개발과제 도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롯데마트는 여름철 고객들의 간편 세제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21일까지 전점에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 간편 세제 상품 ‘반값 할인’ 행사

롯데마트는 오는 21일까지 2주간 전점에서 간편 세제 상품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총 230여개의 세탁용품에 대해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수퍼테크’, ‘퍼실 디스크’, ‘자연풍’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은 ‘원플러스원(1+1)’ 판매 혹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테크 실내건조 캡슐세제(30입)’와 ‘퍼실 디스크 캡슐세제 4종(26입)’을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50% 할인 판매한다. ‘자연풍 스팀워시 주방세제 2종(750ml)’과 ‘아우라 생화캡슐 건조기 시트 3종(80매)’ 또한 2개 이상 구매 시 반값 가격으로 선보인다.

주말 특가 한정 상품도 준비했다. 11일까지 ‘퍼실 파워젤 용기(2.7L)’를 포함한 퍼실 브랜드 8종에 대해 1+1 프로모션

을 진행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는 ‘피지디나자임 닥클린 용기(2.2L)’를 포함한 피지 브랜드 11종에 대해 2개 이상 구매 시 반값 혜택을 선보인다. 더불어 17일부터 18일까지 ‘브레프 파워액티브’를 포함한 브레프 12종에 대해 2개 이상 구매 시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섬유유연제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버넬 섬유유연제 3종(900ml)’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하고, ‘다우니 유연제 생화향기 리필 6종’은 기존 가격 대비 약 30% 할인, ‘르샤프트 건조기시트 5종’은 1+1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엘지생활건강, 헨켈, 유한양행, 프로쉬, 피죤, 애경 등 6개 브랜드 행사 상품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5000원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나다운 기자

광주은행, ‘Wa뱅크 꽃이 피었습니다’ 이벤트

비대면 상품 가입 경품 제공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상품 가입 시 최대 6번의 경품을 제공하는 ‘Wa뱅크 꽃이 피었습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6개월간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벤트 대상 상품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상품별 쿠폰 1매, 개인별 최대 6매, 선착순 5000좌까지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원화예금(월 저

축금 20만원 이상) △원화예금(신규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외화예금(미화 100불 이상) △외화예금(미화 1000불 이상) △펀드(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개인형 IRP(신규 가입금액 5만원 이상)이다.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광주 Wa뱅크(APP) 이벤트 페이지에서 △컴포즈 커피 5000원권 △GS25 편의점 5000원 상품권 △티빙 광고형 스탠드 1개월권 중 원하는 경품 선택까지 완료해야 하며, 경품 지급일 기준 정상 계좌 유지 및 휴대

폰메시지 마케팅 동의 고객에 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 와뱅크(APP),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변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광주 Wa뱅크에서 6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재테크의 즐거움과 편리한 금융생활을 함께 누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보-카카오뱅크, 소상공인 금융지원

175억 규모 협약보증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카카오뱅크와 특별출연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5억원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신보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카카오뱅크는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카오뱅크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신보 홈페이지(www.gjsinbo.or.kr)에서 상담예약 후 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다운 기자

현대차, 전기차 구매고객에 힐튼리조트 숙박권

현대차가 전기차 출고 고객 대상 하와이 3박4일 숙박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동안 전기를 충전하고 하는 국내 고객에게 세계적인 호텔 그룹 ‘힐튼’ 계열의 리조트 운영기업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HGV)’와의 파트너십

을 통해 하와이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앞서 현대차와 HGV는 지난달 초 글로벌 고객 대상 전기차 경험 확대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코

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 출고 후 HGV 멤버십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국내 고객 전원에게 힐튼 계열의 하와이 호텔 3박4일 숙박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권이 제공되는 호텔은 △힐튼 가든인 와이키키 비치 △더블 트리 바이 힐튼 알라나 와이키키 비치 △힐튼 와이키키 비치 △더 모던 호놀룰루 힐튼 베케이션스 클럽 △오션 타워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클럽 중 한 곳이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예상치 못한 낙폭을 보이며 시장에 먹구름을 띄우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의 코스피는 235포인트, 8.77%의 폭락을 기록해 증시가 생긴 이래 최대 낙폭의 신기록을 세웠다. 때마침 미국의 실업률이 4.3%로 올라가면서 미 증시의 하락이 시작됐다. 이 수치는 고물가로 인해서 연준이 사실상 원하던 수치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결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요동치는 증시, 지금은 시장 앞에 겸손할 때

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풀린 막대한 달러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의식한 대규모 정부지출과 의도적 경제 띄우기의 효과가 미미했고 이것이 되레 미국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폭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0% 금리를 고수하던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0.25%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엔화의 가치가 오르고 일본의 싼 이자를 이용

해서 미국 등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지기 시작한 것도 또 다른 증시하락의 원인이다.

여기에 그동안 미국 증시와 경제를 이끌어 오던 대표 섹터인 AI 연관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면서 관련 종목들도 상당 부분 하락했다.

금리는 증시와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시장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상승한다는 것은 모든 투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금리결정의 최우선요건인실업률이 상승해서 오는 9월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것도 0.25%의 스몰스텝이 아닌

0.5%의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는데도 증시는 야속하게도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리인하의 효과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

에 대한 우려도 높다.

과거 통계를 보면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작할 때 전후 몇 개월은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1년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장이 금리인하로 인한 양적완화보다도 경기침체를 더 두렵게 여길 때가 그랬다. 지금도 경기는 좋지 않지만 지금 보다 더한 침체의 쓰나미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투자자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시장은 늘 옳고 시장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의 공포가 사라지길 기다려야 할 것 같다.